

여성들이여 일상에 시비를 걸자!!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9월(7호) 소식지

'1312' 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뭔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 학내 성폭력 근절주관을 마치고나서 ●

양녀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직접 행동주간>을 진행했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중심은 이 주관을 통해 학내 성폭력을 한 번만에 근절시켜 보겠다는 의미나 이슈파이팅 차원은 절대 아니었다. 이런 주관을 통해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개념규정부터 시작해서 학내 모든 구성원이 동참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활동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었다.

이 직접행동주간에 많은 단위에서 지지와 동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공동선언문에 공동명의를 하였고, 이는 앞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벗어내고 학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성폭력 근절학칙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사를 돌아보면 성과지점보다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내 성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우들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하고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대상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관련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화 상영을 마친 후 남아서 같이 토론을 가졌는데 이런 시간들은 매우 유의미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학칙의 필요성 그리고 영남대에서 앞으로 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학내 지원팀에서 일하는 모기(차 김 현수)가 와서 강연과 더불어 이후 술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대경 여성연대회의에서도 경대와 계대가 참가를 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 문제는 짧은 행동주관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제 우리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앞으로 얼마나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성폭력 학칙을 만들고 성폭력 상담 전담기구도 설치하여 학내 성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꾸준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작게나마 성폭력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전할 것이다

<광고>

제 4회 여성영화제가 10월 28-30

인문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주 주제는 여성의 인권입니다.

많이들 보러 가세요.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김명주 (짜가. 영어교육학과 98학번)

이제야 1312를 알게 된 것이 너무 분한 물 만난 새끼 마녀

책, 포켓볼, 클래식, 요리, 사람만나기를 무지 좋아하며 어두운 곳, 외우는 것, 싱거운 음식을 싫어한다.

·소식적부터 '배짱년'으로 불릴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쫓지 않는 재능(?)을 지녔다.

·다방면에 취미가 있으나, 막상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다.

아, 손금 잘 본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다.

·인생 계획은 독신으로 애 하나 낳아서, 토종 기와집에 한복 입고 머리 쪽지고 살다가 때가 되면 손수 주변정리, 장례식 준비 다 해놓고 멋있게(?) 자살하는 것이다.

덧붙여 인생 목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이름 석자 광광광 박아 놓는 것.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1979년 9월 11일 고향에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주옥 살다가 새로운 삶을 느끼고 싶어 부모님의 곁을 떠나 이서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수업도 째보고 선생님께 거짓말해서 놀려도 가고 이곳 저곳을 많이 쏘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98년에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들어와서 1학기는 정말 지루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학기에 짜가와 1312의 자보를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울이의 성격은 활발하고 털털하지만 조금은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헐크'가 살고 있는지 평소에 조용하다 갑작스러운 일에 분노를 합니다. 이제 1312에 들어왔으니 여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추석이 정말 싫다!!!◆

여울

추석은 듣기에는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추석을 싫어한다. 왜냐면 추석이 끝나면 여자에게 후유증이 남는다고 한다. 그만큼 여자만 고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벌이 툭툭 붓도록 정

보러 다녀야 하고 여자만 무역에서 제사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이렇게 여자들이 바쁠 때 남자들은 방에 누워 편안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여자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남자들은 꼭 자기네들이 차렸다는 듯이 여자들은 쏙 빼고 제사를 지내버린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너무 지배한다. 손님 오실때마다 자기들 배고플때마다 상차려오라고 여자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주지 않는다. 남자들은 명절에 여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정말 짜증난다. 자기(남자)들만의 추석이 아니라 모두의 추석인데 왜 여자만 고생을 해야하는 것일까? 빨리 평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순결운동... 그 뒤에 숨겨진 네 가지 함정●

짜가

순결운동이라... 언뜻 듣기에 참으로 멋진 운동인 듯 하다. 개방적이다 못해 문란하기까지 한 성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 너무 신선하고 기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역시 빛 좋은 개살구다.

얼마전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순결사탕과 은장도 모양의 책갈피, 거혼 선물로 첫순결을 주어야 행복해질수 있다는 강연. (표 안나는 '놈' 들은 좋겠군.) 이 사건을 단순히 구시대적 발상에 대한 비웃음이나 체념으로 넘겨버리진 말자. 왜냐고? 우린 아직은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순결운동을 그냥 넘겨버려선 안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래, 우리는 백년전까지만 해도 남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재산이었다. (물론, 모계사회는 예외다.) 당연히 성지배권 역시 남자들에게 있었고, 힘이 없고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 여인네들은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절개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가 평등한 줄도 안다.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는 골동품 남자들. 어떻게든 돌려보내서 평생 머슴살이나 시켰음 좋겠다. (양반 상놈은 사라졌는데, 이놈의 남존여비는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유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다. 남자들이 순결한 여자를 원하는 심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생식'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한다. 프로이트가 그랬던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는 저 내면에 보다 우성의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욕구 때문이라고. 같은 원리다. 남자들은 '자신의' 자손을 위해 (남자 중심의 권력구조 가부장제, 정말 싫다.) 생식의 기능에서 최상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여자를 찾기 때문이다. 여자가 인간에서 암컷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생식에 눈이 멀어 정신의 순결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수컷들이여...

날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라! 순결운동을 참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다. 어릴 적부터 귀따갑게 들어온 정숙함과 순결함이라는 절대적 의무에, 성욕을 느끼는게 죄인양 허벅지를 찌르며 성욕을 참아내야(?) 하고, 최소한 한번은 'NO' 라고 해야 남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숙한 여자가 되고, (진짜 'NO' 라고 해도 피보는 여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당당하게 의사표현하자. 'YES!') 불감증을 미덕으로 삼아야 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판에 웬 은장도? 순결 못 지키면 죽으라고? 그래, 그 은장도가 누구 가슴에 꽃힐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마지막 이유는 그 부작용에 대한 논점이다. 매매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자와 창녀를 구분짓는 이중적 잣대가 유지하기 그지없고, 강한 성욕은 남성다움의 상징인양(마치 발정기의 개 XX같지 않은가!) 마음껏 즐기면서, 너의 순결을 위해 나의 순결을 버렸다는 논리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남자들이 여전히 사랑의 이름으로 한 여자의 순결을 위해 순교라도 하듯이 매매춘을 하고있으며 그들의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해 이용된 많은 여자들은 몸 버리고, 마음도 황폐해져 세상을 등진다. 결국, 그들의 아이를 낳게 할 한 여자의 순결을 위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한 여자는 자신을 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결국 순결의 강요로 고통받는 것은 여자들인 것을...

◆ 활동보고 ◆

▶ 9/15 성폭력 근절 주간 행사를 위해 1312 시비쟁이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총여 여성문화제에서 모두들 열심히 활동하고 와서인지 조금은 힘든 모습들이었지만 열심히 토론했다.

▶ 9/17-18 성폭력 근절 주간 행사에 쓸 자보를 썼다. 양녀는 밤샘 작업까지 해가며 열심히 자보를 썼다. 박수를...

▶ 9/24 설문조사와 선전거리를 설치했다. 인문계 식당앞에 너저븐하게 설치되긴 했지만 뿌듯했다.

▶ 9/25 노천강당 전시실에서 성폭력 관련 영화제를 했다. '안나 이야기', '립스틱'을 상영했다. 아쉽게도 '건 포 제니퍼'는 시간상 상영하지 못했다.

▶ 9/28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왔다. 이후 퍼포먼스도 비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아쉽다. 떠리가 준비했는데..

▶ 9/29 성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노천강당 여학생 휴게실에서 있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인권위 학내지원팀에서 차김 현수씨가 왔었다.

▶ 9/30 신입생이 들어왔다. 자보를 보고.. 뿌듯함.. 모기(차김 현수)와 무계도 와서 함께 즐거운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 10/9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다. 여울이와 랑내, 뽕뽕이, 양녀는 올라이트를 했다. 짜가와 여울이가 함께 하게 되

서 너무 기쁘다.

▶10/11 양녀의 생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생겼다.
다음날 깜짝 쇼를 벌이기 위해서.. 크헬헬..

▶10/12 정기모임이 있었다. 회의 이전에 양녀의 생일파티를 깜짝쇼로 열여줬다. 근데, 전혀 놀라지 않는 양녀.. 우썸!! 과자를 잔뜩 사놓고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 11월 말경에 연대를 주제로한 행사를 하나 할까한다. 15일 11시에 충동연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연대파트너 동향소개◎

▶경대 사회대 여학생회에서는 위원회 전환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단다. 오버쟁취랑 다른 동지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오버쟁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모두들 힘을 내라고 파이팅을 외쳐주자.

▶계대 BUT: 성폭력 근절주관을 멋지게 해내고, 현재 신입생을 모으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효대 성정치 위원회: 식구가 한명더 늘어서 공간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일거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난 모임에서는 시민모임의 활발한 학생참여를 위해 토론회를 했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대만에 다녀오신 비디오를 상영했다.

【1312홈페이지가 생겼어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비쟁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1312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 같다.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갈 자료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손을 빌려 빵빵하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다. 1312 시비쟁이들은 각각 개인의 아이디어를 빨리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신을 일상화하고 홈페이지 안의 내용들을 자주 교환하고 새롭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보화 진출이 많이 늦다.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 이제 정보라는 것은 연대만큼이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특히나 영남대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는 지역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이나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

시비쟁이들 모두가 방학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기본적인 것들을 꼭 배우도록 합시다.

〈1312 홈페이지 구성방향〉

1. 시비쟁이들의 일상-> 모임 소개, 1312 식구 소개, 소식지, 행사 소개
2. 주제마당-> 주제별로 자료를 소개
3. 여성관련 사이트 연결
4. 지역 여성연대 -> 대경 여성연대 회의 : 각 학교 상황공유, 연대회의의 활동 보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경 여성단체
- 5.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
6. 여성주의 문화 -> 영화 리뷰, 책 소개, 대구에서 구할 수 없는 책 실기(카리오네, 니아까, 마녀 등), TV 모니터, 등
7. 토론 광장(주제 올리기)
8. 날적이: 자유 게시판, 방명록

-그림 한 점 소개

현대 서구 페미니즘 미술의 원조

《아르테미시아 젠타레스키》

다음에 소개할 그림들은 다소 섬뜩하다. 그렇다고 이

그림들을 외면하기보다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세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아래 놓인 이래 여자들이 당한 고통을 이 그림의 작가 또한 모질게 겪었고 그로 인한 분노가 이런 종류의 그림을 통해 강렬히 분출돼 나왔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시아 젠탈레스바(1593-1652년)가 그린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는 옛 이스라엘의 애국 여걸과 그녀의 행적을 추모하는 그림이다. 그 전설을 따라가 보자. 부유한 과부였던 이스라엘 여인 유디트는 잇시리아 군대에 의해 자신의 도시가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떤 남자의 눈도 호릴 만큼' 매혹적으로 꾸며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간다. 적에게 도시를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줌으로써 신뢰를 얻은 유디트는 며칠 뒤 홀로페르네스의 연회에 초대된다. 만취한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를 탐해 둘만 남게 되자 그 시회를 이요해 그녀는 홀로페르네스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도망간다. 아침에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잇시리아 군대가 혼비백산해 줄행랑을 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백척간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은 그 전설의 내용 중 유디트가 막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고 있다. 유디트의 얼굴 표정은 결연하다 못해 얼음 같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그녀의 손놀림은 복수와 응징의 추상같은 기운을 발한다. 살기가 철철 넘쳐흐르는 그림인 것이다. 작가의 감정이입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미술사적으로도 이 그림은 가부장 사회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을 매우 자극적이고도 저항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곧잘 평가된다. 원래 '애국심 현양'의 주체인 이 전설을 아르테미시아는 '성의 투쟁'으로 전환시켰다. 유디트의 모습에서 모든 여성의 잠재된 분노가 느껴지는 까닭도 거기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아르테미시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르테미시아는 아버지가 유명한 화가였던 까닭에 그림을 배울 수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여성화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있던 시절,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여성화가 화가 아버지

를 둔 탓에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물 그림으로 유명한 로사보너르, 틴토렛토의 딸 마리에타 로부스티, 우피치미술관에 자화상을 걸어놓고 있는 엘리자베스 비제르브링 안젤리카 카우프만 등이 그들이다.

딸의 탁월한 재능을 확인한 아버지 오라지오 젠탈레스카는 딸사라는 젊은 화가를 고용해 그녀를 개인지도하도록 했다. 그러나 딸시는 그림 가르치는 일은 등한히 하고 19살의 아르테미시아를 강간해 버렸다. 이후 7개월 여에 걸친 소송에서 아르테미시아는 손가락 주리틀기 등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며 악몽같은 심리에 응해야 했다. 일단 판결이 나기까지는 피해당사자인 아르테미시아도 고문 등의 과정을 거쳐야 진술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기왕의 제도 아래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뽐속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어쨌든 이같은 고난을 딛고 아르테미시아는 유명한 인물화가로 성장했다. 피렌체와 로마, 나폴리 등지에서 활약한 그녀는 여러 점의 유디트 그림을 포함해 대체로 영웅으로서의 여성상을 많이 그렸다. 자신의 한과 의지를 인상깊게 담아냈고 그림 속의 여인들처럼 그녀 역시 현실의 억압에 결코 굴하지 않은 위대한 영웅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서구 페미니즘 미술의 원조로 그녀가 꼽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광고>

모두들 힘내서 열심히 살시다!!!